

가구소득계층별 미취업 청년 특성

정 성 미*

1. 머리말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새로운 주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지속적이고 오래된 이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청년 노동시장 대책은 무수히 많았다. 세액공제, 2+1채용 등 주로 중소기업에 맞춰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정책, 취업 성공패키지로 개인단위로 접근해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비롯해 최근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소득보전형태의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대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등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 질이 좋은 곳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근로조건이 괜찮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졸업 후 혹은 졸업을 유예하고 구직활동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보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취업준비를 지속한다.

본 연구는 미취업 청년들이 주로 어떤 활동상태에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가구소득에 따라 미취업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준비 내용과 과정이 다를 것이므로 가구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저소득계층 청년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소득에 따라 청년 노동시장의 성과나 이행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연구와 달리 미취업 청년들이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mjung@kli.re.kr).

II. 청년층(만 19~29세) 노동시장 특징

1. 졸업생과 휴학생의 청년층 노동시장 특징

졸업한 20대(만 19~29세) 청년층 고용률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2017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2003년 이후 70%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2014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니트¹⁾가 급증하고 있는데 2000년 중반 10% 초반 수준에서 2017년 상반기 21.5%까지 치솟았다. 한편 휴학 중인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50.8%로 가장 높았고 2010

〈표 1〉 19~29세 졸업 및 휴학한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추이

(단위: 천명, %)

	졸업								휴학					
	생산가능인구	취업	실업	비경활	니트	고용률	실업률	니트 비중	생산가능인구	취업	실업	비경활	고용률	실업률
2003	5,451	3,830	304	1,317	556	70.3	7.4	10.2	535	252	26	257	47.1	9.3
2004	5,358	3,768	312	1,278	585	70.3	7.6	10.9	579	295	33	252	50.8	10.2
2005	5,163	3,647	306	1,210	734	70.6	7.7	14.2	594	301	26	267	50.6	8.1
2006	4,962	3,504	290	1,169	732	70.6	7.6	14.8	578	283	30	266	48.9	9.5
2007	4,839	3,438	256	1,145	706	71.0	6.9	14.6	535	253	30	251	47.4	10.7
2008	4,737	3,334	245	1,158	716	70.4	6.8	15.1	520	239	29	252	46.0	10.7
2009	4,605	3,197	270	1,139	743	69.4	7.8	16.1	574	259	29	286	45.1	9.9
2010	4,485	3,139	254	1,093	725	70.0	7.5	16.2	597	259	29	310	43.3	10.1
2011	4,373	3,068	234	1,071	726	70.2	7.1	16.6	598	284	30	285	47.4	9.4
2012	4,303	3,027	240	1,036	752	70.4	7.3	17.5	591	280	27	285	47.4	8.6
2013	4,254	2,984	248	1,022	790	70.2	7.7	18.6	549	251	27	272	45.6	9.7
2014	4,267	3,019	285	963	771	70.8	8.6	18.1	577	281	39	257	48.7	12.2
2015	4,407	3,092	294	1,021	814	70.2	8.7	18.5	557	255	34	268	45.7	11.9
2016	4,518	3,186	336	996	878	70.5	9.5	19.4	525	232	41	252	44.2	15.1
2017(상)	4,618	3,201	366	1,051	993	69.3	10.3	21.5	498	215	46	238	43.1	17.5

주: 1) 졸업은 졸업 및 중퇴자를 포함함.

2) 니트 비중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중임.

3) 19~29세 총 생산가능인구를 수확여부로 나누게 되면 총괄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학력구분에 무학이 있기 때문임. 연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2~5천 명 수준으로 나타남.

4) 2017년만 상반기 값이고 이전은 모두 연도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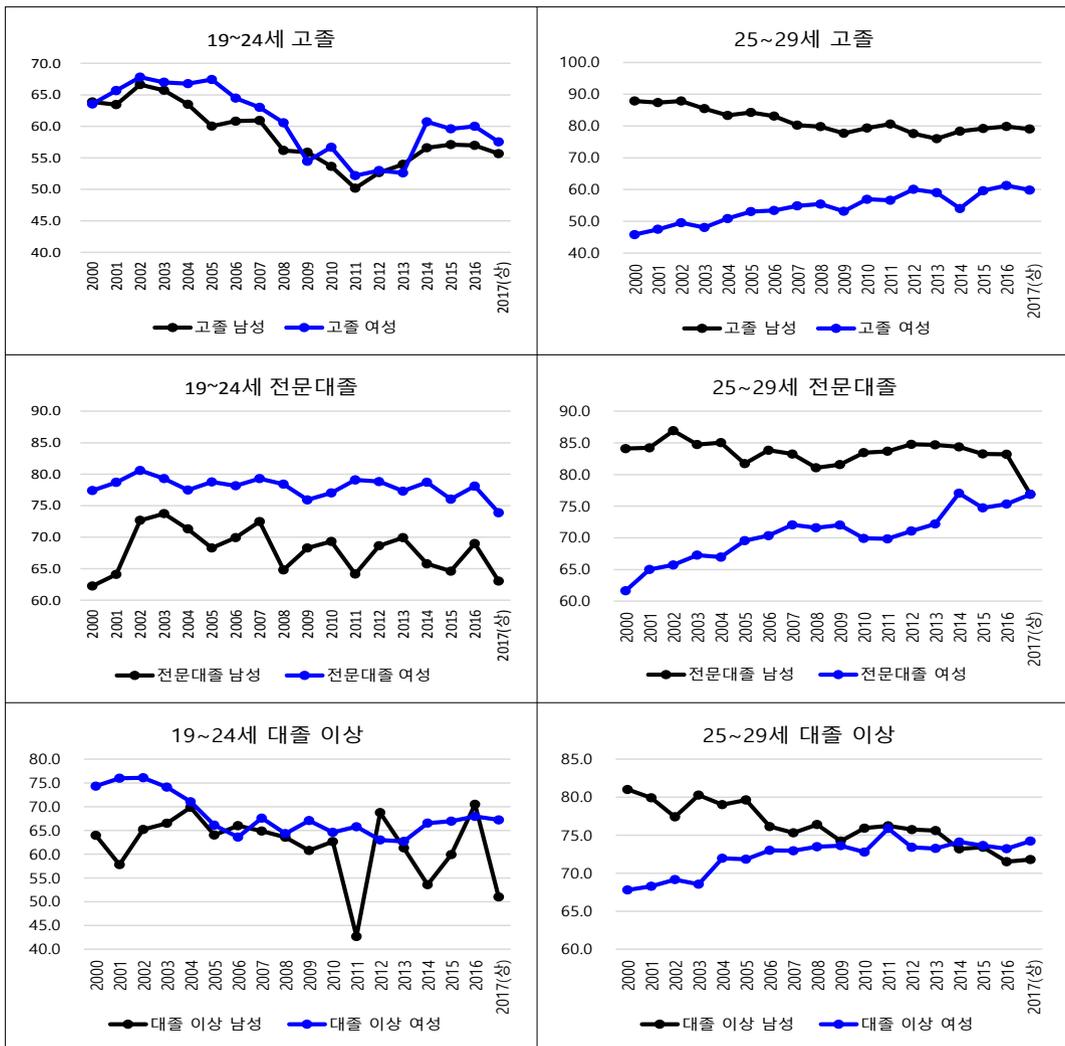
1) 니트는 취업자가 아니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군복무나 정규교육기관의 학업, 육아, 가사, 간병의 이유가 아닌 사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년까지 추세적 하락을 이어가다 2011년 다시 증가했지만 최근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해 2017년 상반기 43.1%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휴학생의 실업률은 2013년까지 10% 내외에서 횡보를 했지만, 2014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7년 상반기 17.5%까지 증가했다.

졸업생의 고용률을 성별·학력별로 보면 고졸 남성의 고용률은 19~24세와 25~29세 모두 하락 흐름이 2012년 이후 멈추고 최근 2~3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졸 남성 고용률은 약간이 횡보를 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감소했다. 반면 대졸 남성 고용률은

[그림 1] 졸업생의 성별·학력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대 후반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여성 졸업생의 경우 대체로 모든 학력에서 2010년 이후 상승국면에 있거나 적어도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대졸 여성과 남성 고용률은 2014년 이후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과 휴학생의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들의 활동사유를 보면, 졸업생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 비중은 2013년까지 20% 미만 수준에서 횡보하다 201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7년 상반기 29.4%로 늘어났다. 졸업생 미취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과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육아+가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2016년 20%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취업준비 비중은 2003년 11.0%에서 빠르게 증가해 2017년 상반기 31.2%까지 늘었다. 졸업한 미취업자 중 절반이 넘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쉬었음이라 응답한 비중도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7년 상반기 17.8%로 늘어났다.

〈표 2〉 미취업자의 활동사유별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졸업한 미취업자 중 비중							휴학생 미취업자 중 비중						
	미취업 (천명)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미취업 (천명)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육아+ 가사	통학	취업 준비	쉬었음	기타			육아+ 가사	통학	취업 준비	쉬었음	기타
2003	1,948	15.6	38.3	4.6	11.0	7.8	6.0	283	9.2	4.9	26.7	12.2	17.8	29.3
2004	1,831	17.0	36.4	4.8	13.0	9.5	6.1	285	11.7	5.5	21.4	17.0	21.3	23.1
2005	1,662	18.4	33.4	5.8	16.8	10.9	5.9	294	9.0	3.2	21.6	21.0	23.4	21.8
2006	1,621	17.9	31.0	5.2	21.0	10.1	4.8	295	10.1	4.0	20.6	22.3	23.8	19.1
2007	1,589	16.1	30.3	5.9	21.2	10.4	4.3	282	10.8	4.4	21.5	25.9	20.4	17.0
2008	1,516	16.2	30.2	6.2	24.0	11.3	4.7	281	10.2	3.3	18.7	30.5	22.3	15.0
2009	1,458	18.5	30.8	6.6	22.0	14.3	4.5	315	9.1	2.6	20.7	30.2	24.0	13.4
2010	1,401	18.1	29.5	7.7	22.9	13.2	4.7	339	8.6	3.0	22.2	30.9	22.3	13.0
2011	1,403	16.7	27.4	8.2	21.5	15.0	4.3	315	9.4	2.6	20.4	28.7	26.0	12.9
2012	1,409	17.0	24.6	7.4	21.7	15.2	4.7	311	8.5	3.4	19.4	28.4	27.5	12.9
2013	1,346	18.4	23.4	6.8	23.7	16.2	5.9	299	9.0	2.5	19.1	28.4	27.8	13.3
2014	1,305	21.8	22.8	6.5	23.6	14.8	6.1	296	13.2	1.0	18.4	28.1	23.7	15.6
2015	1,276	23.0	23.3	7.5	26.6	16.7	6.0	303	11.4	1.5	15.8	28.3	23.9	19.1
2016	1,269	26.5	21.0	8.9	26.9	15.7	6.0	293	14.1	1.8	20.5	30.1	19.7	13.8
2017(상)	1,247	29.4	19.2	7.9	31.2	17.8	8.0	284	16.1	1.0	16.4	32.8	21.5	12.3

주: 통학은 정규기관 및 입학원통학,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취업준비를 위한 학원통학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휴학생 미취업자의 활동사유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졸업생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취업자 중 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7년 상반기 16.1%를 기록했고 특히 취업준비가 크게 늘어 32.8% 수준을 보였다. 2003년에는 휴학 미취업자 중 취업준비가 12.2% 정도에 불과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두 배 이상 증가해 30% 수준을 넘겼고,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였다.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졸업을 유예하고 휴학상태를 유지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졸업생 고용률은 7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휴학생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하는 실업자와 취업준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활동이 반영된 것이며 또한 지난 15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 영향으로 육아나 가사 비중이 크게 줄어든 까닭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욕구는 늘어가는데 고용률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활력이 둔화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 3>을 통해 졸업한 미취업 청년의 활동사유를 학력별로 보면, 학력과 무관하게 고졸 이하,

<표 3> 졸업한 미취업 청년층의 학력별·활동사유별 비중 추이

(단위 : %)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실업	육아+가사	통학 등	취업준비	쉬었음	실업	육아+가사	통학 등	취업준비	쉬었음	실업	육아+가사	통학 등	취업준비	쉬었음
2003	16.0	51.0	6.5	7.2	11.1	24.6	43.5	3.5	15.1	7.9	21.6	33.4	4.2	29.2	5.8
2004	17.8	47.4	6.9	6.6	12.8	22.4	39.7	2.5	20.2	10.0	21.7	29.4	4.8	32.4	6.8
2005	19.5	41.5	8.3	8.1	14.4	23.3	35.0	3.5	21.6	12.0	18.6	26.8	4.7	39.1	6.5
2006	18.4	41.1	8.5	10.8	13.9	21.3	35.4	2.1	25.8	11.9	21.2	21.4	3.8	44.4	5.6
2007	16.4	41.2	9.8	10.2	15.2	22.2	36.1	3.8	24.4	10.8	18.3	20.8	3.7	48.2	6.5
2008	15.3	40.2	10.7	11.3	15.1	20.0	33.9	2.6	28.0	12.5	18.7	19.3	3.6	48.2	7.0
2009	16.1	39.0	10.7	9.6	17.9	21.8	33.0	2.4	23.4	16.3	21.9	19.0	4.2	44.0	8.4
2010	14.7	35.8	13.9	11.1	17.4	23.1	35.9	1.5	22.2	13.6	21.5	18.8	4.7	44.0	8.4
2011	13.2	33.9	15.0	11.2	19.1	21.3	35.7	2.5	19.2	18.6	22.2	17.4	4.6	44.4	9.3
2012	13.6	30.3	14.8	11.8	20.9	21.1	35.6	2.2	19.0	19.3	24.1	16.3	3.6	44.3	9.3
2013	14.0	27.2	12.7	13.5	22.0	22.9	30.5	3.1	21.8	18.1	24.2	17.7	3.0	42.3	10.3
2014	15.9	28.2	12.1	13.9	18.7	28.4	24.0	2.6	23.6	17.5	27.7	18.7	3.0	38.1	10.4
2015	16.3	25.1	13.7	15.1	19.5	26.5	22.3	1.8	29.1	17.2	27.1	19.9	2.9	36.3	11.8
2016	17.8	22.5	15.8	14.5	18.2	27.5	22.9	1.8	28.2	16.8	32.5	15.6	3.3	37.2	10.2
2017(상)	16.4	21.9	12.7	16.6	18.2	30.6	17.3	2.0	28.2	19.8	34.0	11.0	3.2	39.6	10.4

주: 통학은 정규기관 및 입시학원통학,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취업준비를 위한 학원통학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전문대졸, 대졸 이상 모두에서 미취업자 중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저학력일수록 실업+취업준비 비중이 낮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가사 및 쉬었음 비중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은 실업자이거나 취업준비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졸 이상의 경우 2017년 상반기 기준 미취업자 중 실업(34.0%) + 취업준비(39.6%)가 73.6%로 2/3 이상 차지하였으며, 추세적으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졸 이하의 경우 실업(16.4%) + 취업준비(16.6%)는 33%에 불과했고, 통학의 비중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아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가사가 21.9%, 쉬었음이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취업 청년 중 공시생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미취업(실업+비경황)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4>를 보면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지난 1주간 취업관련 시험준비²⁾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7년 40만 명 정도로 미취업자의 28.8%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 55만 명으로 미취업자 가운데 약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한 미취업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2007년 27.4%에서 2016년 43.4%로 증가했다. 졸업생이나 휴학생 모두 미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취업관련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졸업한 미취업자 중 시험준비를 하지 않는 이들은 무엇을 주로 하는가 살펴보면, 2007년에는 육아+가사를 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35.1%였고, 그냥 쉬었음이라 응답한 비중이 12.1%였던 반면, 2016에는 육아+가사 비중이 18.8%로 크게 줄었고 쉬었음은 13.2%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타사유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대부분으로 2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한편 휴학한 미취업자 중 시험준비를 하지 않은 청년층은 2007년에 비해 쉬었음이나 기타사유가 크게 줄었고 통학의 사유는 약 15%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졸업생과 휴학생 간 특징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까닭에 두 집단을 합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는 미취업 청년층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은 크게 일반직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과 일반 기업체(대기업 및 중소기업) 준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직

2) 시험준비는 방송, 신문 등 언론사, 공사,공단 등 국공영기업체, 대기업 등 일반기업체, 교원임용고시, 사법 시험 및 5급, 7급, 9급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미용사 등의 자격증을 포함한다.

〈표 4〉 미취업(실업+비경활) 청년층의 시험준비 비중

(단위: 천 명, %)

	졸업생								휴학생							
	미취업	시험준비	%	시험준비 하지 않음				미취업	시험준비	%	시험준비 하지 않음					
				육아가사	통학 등	쉬었음	기타				육아가사	통학 등	쉬었음	기타		
2007	1,404	405	28.8	35.1	4.3	12.1	19.7	271	74	27.4	5.5	14.6	20.9	31.5		
2008	1,406	429	30.5	33.3	5.3	10.8	20.2	277	95	34.1	4.5	14.5	19.0	27.9		
2009	1,379	400	29.0	31.1	4.7	14.5	20.7	310	110	35.6	2.7	14.7	22.9	24.0		
2010	1,299	395	30.4	31.8	6.4	12.8	18.6	329	133	40.3	3.6	15.5	23.3	17.4		
2011	1,281	420	32.8	29.8	6.9	14.0	16.6	335	133	39.7	1.9	14.6	20.0	23.7		
2012	1,268	419	33.1	26.8	6.2	15.2	18.7	286	111	38.9	2.8	12.8	24.3	21.2		
2013	1,254	451	36.0	25.2	5.3	15.7	17.9	283	101	35.5	3.5	14.0	28.5	18.6		
2014	1,267	502	39.6	21.8	5.0	14.3	19.2	273	105	38.5	0.7	13.6	22.3	25.0		
2015	1,336	510	38.2	21.2	5.1	14.6	20.9	300	109	36.2	0.7	9.3	20.7	33.0		
2016	1,322	550	41.6	18.8	6.8	13.2	19.6	290	126	43.4	1.8	15.6	15.4	23.9		

주 : 1) 통학은 정규기관 및 입시학원통학,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취업준비를 위한 학원통학을 포함함.

2) 시험준비 하지 않음 중 기타는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공무원 준비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 감소를 보였지만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해 40% 수준으로 늘어났고, 기업체 준비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 25~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자격증(미용사, 조리사 등)과 임용시험, 회계사나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준비는 그 수가 많지 않고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 기업체 준비와 공무원시험으로 양분되는 시험준비 중 최근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리고 있다고 잘 알려진 ‘공시생’ 특성이 어떠한지 졸업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공시준비생을 공사, 임용고시, 사법시험 등 5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을 준비하는 청년이라 정의해 보면, 미취업 졸업생 중 공시준비를 하는 규모는 2016년 281천명으로 미취업자 중 2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6 참조). 이러한 경향은 실업자에서도 나타나는데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실업자 중 공시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실업자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졸업 후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절반 정도가 공시준비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6년 55.6%를 기록했다.

졸업 미취업자의 공시준비 경향은 학력별로 양상이 다른데 학력이 높을수록 공시준비 비중

이 높았고, 특히 대출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기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0~70% 수준에 있었으며 201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졸의 경우도 공시준비생 비중이 낮긴 하지만 2007년 21.1%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공시준비 비중이 증가해 고졸 미취업자의 약 36%가 공시준비 중이라 응답하였다.

〈표 5〉 시험준비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구성비

(단위: 천 명, %)

	시험준비 (천 명)	언론사	공사 등	기업체	임용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회계사 등	기능 자격증	기타
2007	479	0.5	6.6	17.2	7.1	3.4	38.1	7.7	15.3	4.1
2008	523	0.9	6.2	19.5	5.7	4.0	38.2	7.5	12.6	5.5
2009	510	1.5	6.2	22.2	7.7	2.7	33.8	8.7	11.7	5.5
2010	528	0.6	4.0	17.9	4.9	4.8	33.2	10.2	15.4	9.0
2011	553	1.6	4.3	24.5	4.3	2.2	31.1	5.8	15.2	11.1
2012	530	1.5	4.1	26.8	5.6	2.8	30.3	6.1	13.9	8.9
2013	552	1.8	7.3	22.1	3.8	0.9	35.2	5.7	14.0	9.2
2014	607	1.7	5.9	29.5	5.5	0.9	29.0	6.3	12.9	8.4
2015	619	1.8	5.7	25.3	3.8	1.7	39.1	5.1	14.8	2.7
2016	676	1.1	9.2	28.8	3.3	1.3	39.9	4.2	10.0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표 6〉 졸업생 중 공시준비 추이

(단위: 천 명, %)

	공시준비 규모(천 명)				공시준비 비중				학력별 미취업자 중 공시준비 비중		
	미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준비	미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준비	고졸	전문대 졸	대출 이상
2007	212	18	194	194	15.1	6.4	17.2	55.5	21.1	45.1	71.7
2008	226	9	217	216	16.1	3.5	18.9	55.6	23.5	51.2	69.0
2009	193	10	183	170	14.0	3.6	16.7	50.7	23.6	42.2	64.0
2010	171	14	157	156	13.2	6.2	14.7	44.3	22.6	27.2	59.0
2011	170	23	147	140	13.3	9.1	14.3	48.1	24.7	25.8	65.1
2012	175	26	149	142	13.8	8.9	15.3	49.2	29.8	34.3	60.8
2013	198	31	167	155	15.8	12.4	16.7	50.1	28.9	30.4	66.1
2014	198	32	167	158	15.6	10.2	17.4	47.8	27.4	27.2	61.4
2015	249	52	197	175	18.6	15.5	19.7	52.9	36.4	40.3	65.7
2016	281	69	212	193	21.2	20.0	21.7	55.6	36.4	39.4	6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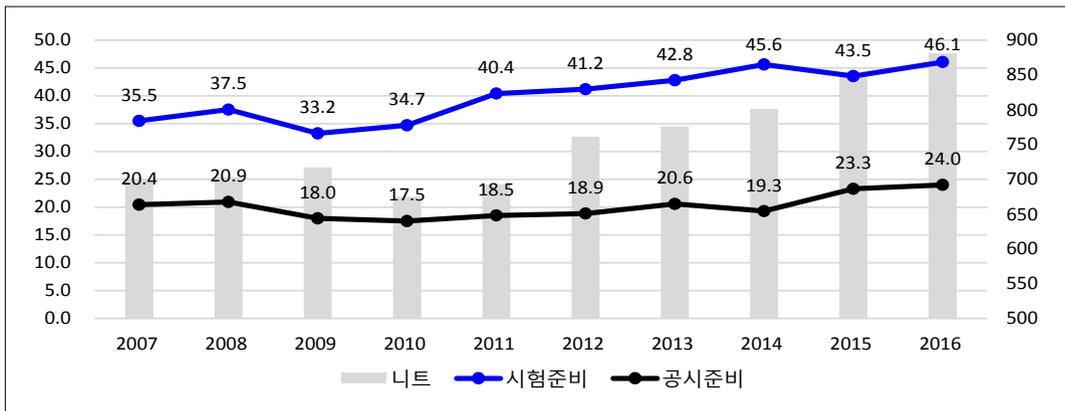
한편 이러한 현상을 니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지 보면, 청년 니트 중 시험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7년 35.5%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며 40% 이상 크게 증가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46.1%를 기록해 니트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공시로 한정해 보더라도 니트 중 1/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실 니트를 정의하는 구성요소는 ‘취업자가 아니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군복무나 정규교육기관의 학업, 육아, 가사, 간병의 이유가 아닌 사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청년’인데, 분석결과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취업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포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의 절반 가량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그중 절반이 공시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니트 연구에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20대 청년은 2000년 이후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많아지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며 출산 및 육아로 비롯되는 노동시장 이탈이 과거에 비해 덜 발생하는 영향으로 육아 및 가사나 통학이 크게 줄어든 반면 실업과 취업준비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나 취업준비의 상당부분이 공시준비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졸업한 청년들 중 취업준비생의 대부분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중 공시준비가 절반이 넘었으며 휴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65%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으로 대변되는 시험 준비에 몰리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³⁾ 다만 2016년(청년부가조사, 5월) 기준 졸업한 20대 청년 실업자는 367

[그림 2] 청년 니트 중 시험준비 및 공시준비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3) 2016년 8월 19~29세 비재학(졸업+휴학) 청년의 비정규직 규모는 851천 명으로 2013년 8월 이후 증가를 지속해 2015년 8월 대비 43천 명이 증가했으며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26.7%로 2013년 8월 25.3%에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천 명인데 비경할 취업준비생 중 공시준비하는 규모가 282천 명으로 실업자의 거의 80%에 육박하니 이러한 현상은 청년실업만큼이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가구소득수준별 미취업 청년층 특성

이 절은 가구소득 분포별 미취업 청년들의 행태를 분석하도록 한다. 소득분포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을 이용하는데 이때 중위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포구간이 달라지고 전체 결과 값이 달라지게 된다.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은 조사자료 값으로 구하는 상대적 수준인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이 있고,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인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을 이용해 소득구간을 계산하였다.⁴⁾

소득구간은 저소득(1~60%), 중저소득(61~100%), 중상소득(101~150%), 상위소득(151~200%), 최상위소득(201% 이상)으로 소득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복지패널 2015년(11차)을 활용하였고, 비재학(졸업+휴학) 19~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전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이고 가구 내 개인소득은 상용임금+임시일용임금+사업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을 말한다. 이때 가구소득에서 청년개인의 소득을 제외한 값으로 소득분포를 구성하는 것이 가구소득분포별 청년의 행태분석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가구소득에 본인소득(취업자만 있음)이 포함될 경우 총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취업자에게는 가구소득 분포 전체를 고소득층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⁵⁾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는 본인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아 제외하고 분석하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에는 본인 소득이 제외된 가구소득으로 소득분포를 구성하는 것이 미취업자의 행태를 분석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⁶⁾

<표 7> 졸업생과 휴학생의 가구소득분포별 비중 및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먼저 졸업생의 경

- 4)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해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본 소득분포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으로 본 분포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하에서 분석한 모든 결과를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중위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5) 19~29세 취업자의 경우 가구소득에 본인의 소득이 포함될 경우 101% 이상 구간에 집중되어 상위소득구간에 취업자가 대부분 몰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가구소득에 취업한 본인의 소득 포함여부에 따라 각 소득계층별 고용률에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 6) 분석대상인 19~29세 비재학(졸업 + 휴학) 청년층 중 1인가구 비중은 4.6%로 분석에 포함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 중저소득 이하(100% 이하)의 비중이 54.0%(22.7+31.3)를 차지하고 중상위소득을 포함하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중저소득 이하에 80% 가까이 분포하는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중저소득(34.6%)과 중상위소득(33.9%)에 70%가량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소득분포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저소득과 최상위소득의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각각 79.2%, 75.6%를 기록했고, 중상위소득의 고용률이 58.5%로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비경활률은 저소득층이 가장 낮아 18.5%인 반면, 그 외 소득층은 약 23.2~40.6%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생의 소득분포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가구소득이 낮은 층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은 곳에서는 비경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졸업생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리하면 가구소득분포별 졸업생과 휴학생의 경제활동상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졸업생의 경우 가구소득이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쪽에서 취업을 가장 많이 했고 오히려 중간소득층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비경활률은 저소득층이 가장 낮고 중간소득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소득분포별 차이를 보였다. 휴학생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높고 비경활이 낮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곳은 비경활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가장 중간소득층인 101~150% 소득계층은 졸업생이나 휴학생 모두 고용률이 모든 소득계층 중 가장 낮고, 비경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청년이 더 활발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중간소득층에서 미취업 비중이 높고 오히려 최상위소득층에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취업자 분류에는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일자리를 갖는 경우도 취업자로 분류되어 미취업이 실제보다 적게 드러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층에서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

〈표 7〉 졸업생과 휴학생의 가구소득분포별 비중 및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졸업생							휴학생						
	비중				고용률	실업률	비경활률	비중				고용률	실업률	비경활률
	전체	취업	실업	비경활				전체	취업	실업	비경활			
~60%	22.7	27.0	18.8	13.8	79.2	2.8	18.5	14.4	26.3	24.3	8.4	58.3	4.6	38.9
61~100%	31.3	28.5	60.6	34.6	60.9	8.0	33.9	28.2	28.7	50.0	27.4	32.4	8.3	64.7
101~150%	25.6	22.4	8.5	33.9	58.5	1.5	40.6	21.8	12.4	18.6	26.4	18.2	7.2	80.4
151~200%	12.4	12.9	8.6	11.6	69.5	2.6	28.6	17.6	24.0	0.0	15.0	43.4	0.0	56.6
201%~	8.1	9.1	3.5	6.1	75.6	1.5	23.2	18.0	8.5	7.1	22.8	15.1	4.1	84.2
전체	100.0	100.0	100.0	100.0	66.7	3.9	30.6	100.0	100.0	100.0	100.0	31.9	4.9	66.5

주 : 졸업생은 중퇴+수료+졸업을 포함함.
 자료 : 복지패널 11차(2015년).

는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이다.

졸업한 청년 미취업자의 특성상 소득분포에 상관없이 약 35~45% 정도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소득분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분포별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은 구직활동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다른 소득분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12.8%가 구직활동을 포기했다고 응답했고, 기타(근로무능력, 군복무, 간병, 근로의사 없음, 기타)의 비중이 3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소득층과 최상위소득층은 학업 및 진학준비 비중이 각각 17.5%, 15.3%로 나타났다. 휴학생의 경우 소득구간이 높은 151% 이상에서는 주로 학업 및 진학준비를 하는 한편 저소득층은 학업 및 진학준비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표 8〉 가구소득분포별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

	졸업생(각 소득분포=100)					휴학생(각 소득분포=100)				
	육아가사	학업, 진학준비	취업 준비	구직활동 포기	기타	학업, 진학준비	취업 준비	구직활동 포기	기타	
~60%	7.4	6.2	42.9	12.8	30.7	33.8	13.2	5.4	47.6	
61~100%	14.9	11.5	35.1	5.8	32.7	22.5	16.7	0.0	60.8	
101~150%	20.9	3.8	45.1	2.4	27.9	43.2	29.4	0.0	27.5	
151~200%	23.5	17.5	35.0	3.4	20.6	47.4	16.8	0.0	35.7	
201%~	16.4	15.3	45.0	0.0	23.3	60.3	16.0	0.0	23.7	
전 체	17.0	9.1	40.1	5.0	28.8	41.3	19.6	0.5	38.7	

주 : 비경제활동사유 중 기타는 근로무능력, 군복무, 간병, 근로의사 없음, 기타를 포함함.
 자료 : 복지패널 11차(2015년).

가구소득분포에 따라 니트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표 9>를 통해 보면, 니트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150% 이하 소득층(저소득, 중저소득, 중상위소득층)에서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저소득 이하에서 절반이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계층을 100으로 봤을 때 각 소득분포별 니트 발생비중을 보면 저소득층의 78.4%, 최상위소득층의 75.9%가 니트인 것으로 나타나 양 극단에서 니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분포가 중하위~중상위(61~200%) 구간에서는 60%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양 극단 중 저소득층은 취업준비 비중도 다른 소득층에 비해 가장 낮은 47.8%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구직활동포기가 14.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로 분류된 근로무능력, 근로의사 없음까지 포함하면 거의 40% 수준까지 증가한다. 반면, 상위소득과 최상위층 니트청년은 50% 이상이 취업준비 중이고 각각 26.3%, 19.2%가 학업 및 진학준비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포별 니트의 성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표 9〉 니트의 가구소득분포별 활동사유별 비중

(단위: 천 명, %)

	니트 규모	니트 분포	니트 비중	소득분포별(각 소득분포=100)			
				학업, 진학준비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	기타
~60%	158	17.0	78.4	7.0	47.8	14.6	30.6
61~100%	321	34.5	60.5	13.1	50.3	8.3	28.3
101~150%	286	30.7	63.1	5.9	69.9	3.7	20.5
151~200%	101	10.9	62.6	26.3	52.5	0.0	21.2
201%~	64	6.9	75.9	19.2	56.4	0.0	24.4
전 체	931	100.0	65.0	11.7	56.5	6.5	25.3

주: 비경제활동사유 중 기타는 근로무능력, 군복무, 간병, 근로의사 없음, 기타를 포함함.
 자료: 복지패널 11차(2015년).

가구소득분포별 니트의 특성을 학력과 결합해보면(표 10 참조), 저소득+저학력에서 니트 발생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 중 고졸 이하 니트가 83.2%, 중저소득의 고졸 이하 니트가 5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대졸 이상 비중이 높아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니트의 가구소득분포별 학력 수준

(단위: %)

	학력별 분포			소득분포별(각 소득분포=100)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60%	10.9	4.0	17.2	83.2	9.4	7.4
61~100%	44.0	33.2	37.4	54.7	17.5	27.8
101~150%	19.3	39.5	28.3	46.1	10.1	43.8
151~200%	19.7	14.9	10.6	28.7	27.5	43.8
201%~	6.1	8.4	6.5	45.2	14.1	40.8
전 체	100.0	100.0	100.0	53.8	14.9	31.3

자료: 복지패널 11차(2015년).

한편, 복지패널에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가구 소득과 연계해 청년층 분석이 가능한 청년패널 9차 자료(2015년)를 활용하여 추가분석을 해보았다. 청년패널은 추적조사인 까닭에 첫 조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연령 표본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9차(2015년) 자료에 9차 신규데이터를 포함시켜 분석하였고, 횡단면

가중치를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방식과 분포기준은 복지패널과 동일하게 하였고, 가구소득이 없는 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청년패널에서 시험준비항목으로 묻는 시험은 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시, 기술고시, 7급, 9급공무원, 교원임용고시, 공사시험, 치/의학시험, 기타전문자격시험으로 이 중 9급공무원 비중이 48.1%, 교원임용시험이 15.4%, 7급공무원 비중이 11.4%, 기타전문자격시험이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가구소득분포별 졸업 및 휴학생 미취업자 중 시험준비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 대졸 이상에서 준비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준비 비중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데 저소득층은 미취업자의 4.8%만이 시험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상위층은 24.4%로 나타났다. 각 소득계층에서 학력별 시험준비하는 비중을 보면, 저소득층의 대졸 이상 미취업자의 17.8%가 시험준비를 하는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최상위층(201% 이상)의 대졸 이상의 미취업자 중 51.1%가 시험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학력별로도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시험준비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니트 중 시험준비 중인 비중 역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소득층의 청년니트의 4.5%만이 공시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최상위층은 니트 중 30.8%가 공시준비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1〉 미취업(실업+비경활) 청년층의 시험준비 비중

(단위 : %)

	시험준비 비중	학력별			니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니트	니트 중 시험준비 비중
~60%	4.8	1.7	7.7	17.8	53.4	4.5
61~100%	11.2	9.6	6.3	18.0	45.8	11.6
101~150%	15.9	10.0	10.8	25.7	49.4	13.6
151~200%	21.0	12.1	28.3	26.6	40.8	16.7
201%~	24.4	7.7	0.0	51.1	61.1	30.8
전 체	13.2	8.6	9.5	23.7	47.7	12.5

주 : 1)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취업준비를 위한 학원통학을 포함함.

2) 졸업 및 휴학생이 대상임.

자료 : 청년패널 9차(2015년).

7) 분석대상인 19~29세 비재학(졸업+휴학) 청년층 중 1인가구 비중은 1.7%로 분석에 포함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미취업 20대(만 19~29세) 청년층의 주된 활동상태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살펴본 후 가구소득수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미취업(졸업+휴학생) 청년층 중 실업과 취업준비가 빠르게 늘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층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지난 15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의 영향으로 육아나 가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증가한 미취업 청년의 절반 정도는 시험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하는 시험의 약 40%가 공무원시험, 약 30% 일반기업체 시험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 후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공시준비를 한다고 응답했고, 휴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65%를 넘는 수준에 이르러 다수의 취업준비생이 공시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청년니트 중 시험준비하는 니트가 절반에 달했고 니트 중 공시준비 중인 경우는 25%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니트를 정의하는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가구소득분포별로 청년 미취업자의 활동사유를 본 결과 연령의 특성상 소득분포와 상관없이 약 35~45%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소득분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은 구직활동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높았고, 상위소득층에서 학업 및 진학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소득분포별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분포별 니트를 학력과 교차분석한 결과 저소득+저학력과 고소득+고학력에서 니트 발생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학력과 소득구간의 양분된 현상도 발견되었다. 청년패널로 시험준비생의 소득분포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시족으로 대변되는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고학력+고소득층에서 공시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과 시험준비의 연관이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개인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미취업 상태의 성격이 다르고 취업준비의 여력이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력과 가구소득을 결합했을 때 그 정도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KL**